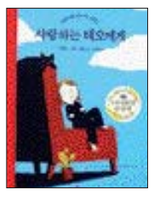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한눈에 반한 서양미술관=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명작들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 젤로, 밀레, 뭉크, 모네, 렘브란트, 베르메르, 고흐, 피카소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세계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거인·1만2천원〉

▲에바 페론=국내외 유명인사들의 행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 역사 인물 이야기 시리즈. 아르헨티나의 격변기 시대에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서 살다간 성녀,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사랑하는 테오에게=부모님의 이혼으로 자칫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아홉살 소녀 레아와 아빠의 새 여자친구 테오의 만남을 그린 소설이다.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의 성격과 생활방식이 현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큰북 작은북·8천원〉

▲비밀편지를 받다=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척, 관심없는 척하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우정을 다룬 책이다. 항상 여자들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남자 아이들의 이야기가 재미를 준다. 〈소년한길·9천원〉

▲셔우드 홀=결핵 요양원과 크리스마스실로 조선의 결핵 환자들을 구한 미국인 의사 셔우드 홀의 꿈과 도전을 그리고 있다. 의사로서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이 감동적이다. 〈뜨인돌 어린이·8천500원〉

다큐처럼 생생한 개혁가 정조의 삶

이산 정조대왕 이상각 지음

2007년 '정조'가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를 시작으로 드라마 '이산-정조', '8일', 영화 '방각본 살인사건', '백탑파' 등 다양한 문화 장르로 확대되고 있다.

'이산-정조'를 기획중인 '대장금'의 이병훈 PD는 "정조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적들을 끌어안고 큰 개혁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정조를 주목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상각씨가 쓴 '이산 정조대왕-조선의 이노베이터'는 조선 개혁 군주의 표상인 정조의 모습과 인간 이산(정조의 본명)의 모습을 교차시키며 정조를 온전히 복원한 책이다. 역사서이면서도 소설 형식을 차용한 덕에 재미있게 읽히는 게 특징.

책은 조선 왕조 사상 가장 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된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현륭원 참배,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잔치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을묘년 원행'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수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노론 벽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였다.

책은 김홍도 등 당대 화가들이 정조의 화성 행차 행렬을 그림으로 그린 '정조대왕 능행반차도'와 함께 8일간의 여정을 따라 찍은 지금의 모습을 찍은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

2부 '나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는 11살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모습을 지켜 봐야 했던 정조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노론의 방해 공작을 딛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즉위 후 왕권을 강화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부 '이것이 개혁이다'에는 정조가 조선의 문제점들을 뜯어고치고자 했던 개혁 과제와 성과들이 실려 있다.

암행어사 제도를 확대하고 노비 제도를 혁파하고, 서얼들에게도 관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조의 개혁 정책이 정착해 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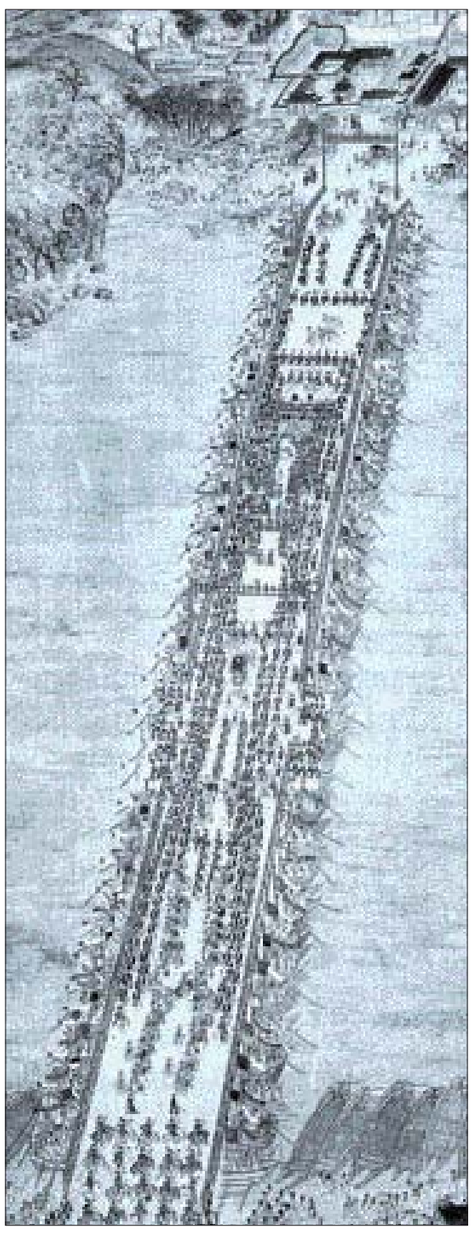
4부 '정조 안의 사람들, 정조 밖의 사람들'에서는 정조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당대 조선을 들여다본다.

세손 때부터 정조를 보위했던 홍국영, 정조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채제공,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는 데 탁월했던 박제가, '리틀 정조'로 불린 정약용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또 훗날 정조를 독살했다는 의심까지 받았고 정조 사후 수렴청정을 하며 개혁 성과를 백지화 시켜 버린 정순왕후,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혜경궁 홍씨 등의 모습도 들어 있다.

'대중 역사서'를 표방한 책은 톡톡 튄다. 혜경궁 홍씨의 입에서 '노 프러블럼'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 이런 부분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이 책은 '정조'와 '정조의 시대'를 알아가는 데 길라잡이가 될 만하다. 〈추수밭·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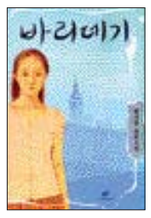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조의 8일 행차는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정조 일행의 8일간의 행적을 그린 '능행도' 중 정약용이 설계한 노량진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

세계화 그늘 속 탈북소녀의 파란만장한 삶

바리데기 황석영 지음



세계적인 한국 소설가 황석영씨가 '심청, 연꽃의 길' 이후 4년 만에 장편소설 '바리데기'를 펴냈다. 소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겨레신문에 연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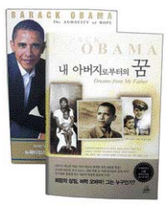
저자는 소설의 얼개를 전통설화 '바리데기'에서 차용했다. 설화는 오귀대왕의 일곱째 공주로 태어나 버려진 인물이 병든 부모를 위해 저세상까지 가 생명수를 구해온다는 내용으로, 바리데기는 시련을 극복한 효녀 또는 사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오구신으로서 무당의 원형이 되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바리'는 북한 지방 관료의 일곱째 딸로 태어난다. 아들을 원했던 부모에 의해 버려지지만 풍산개가 데려와 다시 살려놓는다. 주인공은 심하게 앓은 뒤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바리의 파란만장한 삶은 탈북과 함께 시작된다. 저자는 설화와 현실을, 저승과 이승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영혼과 소통하는 주인공의 삶을 박진감 있게 그려냈다. 출간 전 영어·불어·독일어·일본어 번역이 결정됐다. 〈창비·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美 대통령 후보 오바마의 자서전·에세이

내 아버지…, 버락 오바마…



'검은 케네디'란 별명을 얻으며 미국 최초의 유력 흑인 대통령 후보가 된 버락 오바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를 알 수 있는 자서전과 정치 에세이 두 권이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자서전 '내 아버지의 꿈'은 1995년 초판 이후 2004년 개정판이 나왔고 세상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다. 백인 어머니와 인종차별 폐지론자인 케냐의 흑인 유학생 아버지의 사랑, 의붓아버지와 함께 보낸 유년기, 세상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 방황하던 청소년기, 시카고 빈민 지역에서 공동체를 조직하던 시절 등 '인간' 오바마를 접할 수 있다.

에세이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은 소액 헌금으로 최대 선거자금을 모은 공화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보주의자 오바마의 정치적 논리를 맛볼 수 있는 책이다. 〈랜덤하우스·자서전 1만8천900원 에세이 19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슈테판 츠바이크 '에라스무스 평전'

슈테판 츠바이크는 뛰어난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기 작가로서 명성을 누렸다. 그는 인물의 내면세계와 심리적 갈등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평전의 재미는 어떤 인물이냐가 아니라, 그 인물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달려있다. 츠바이크가 그려낸 인물은 그 어느 전기에서보다 자신의 특별한 광휘와 매력을 마음껏, 생동감 넘치게 분출했다.

츠바이크가 다룬 면면을 열거해보면, 발자크, 디킨스, 마리 앙투아네트, 메리 스튜어트, 카사노바, 스탕달,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니체 등이 있다. 인생의 굴곡과, 업적과, 후대에 끼친 영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츠바이크 다룬 인물들 중에 위에서 열거한 인물들과 한 자리에 놓기에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에라스무스다.

에라스무스는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의 저작들 중 우리 시대로 넘어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사적인 삶에도 글로 이야기할 만한 흥밋거리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여자관계는 백지처럼 깨끗했으며, 기행이라 할 만한 에피소드도 남긴 적이 없다. 그는 병약한 몸으로, 네 시간만 자고, '나머지 스무 시간은 글을 쓰고, 읽고, 토론하고, 대조하고, 교정하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하고서도' 70년을 산 재미없는 자였다.

인생을 재미있게 산 사람들만 다루던 츠바이크는, 어째서 그토록 재미없는, 중세의 끝자락을 살았던 인문학자를 선택하여 다룬 것일까? 하지만 안심하시라! 츠바이크의 글에서는 지독하게 재미없는 사람도 아주 재미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책의 압권이라 할 만한 에라스무스와 루터와의 글 논쟁은, 마치 전투 장면처럼 박진감 넘치게 그려지고 있을 지경이다.

츠바이크는 종교개혁기를, 루터의 신교, 썩은 교황파, 또 다른 신교, 농민봉기, 이 모든 것이 끝 모를 지점으로 치달으며 대립한, '폭력과 광기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그 폭력과 광기의 시대에 '서양의 모든 저술가와 창조자 중에서 최초로 의식 있는 유럽인이었으며 투철한 평화애호가였고 인문주의의 이상과 세계 우호 및 우호정신이라는 이상을 위한 달변의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중용을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 공자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츠바이크는 제2차 대전의 인간 광기의 폭발로 여겨졌을 것이고, 광기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특히 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에라스무스처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며, 전쟁을 거부하며, 끝까지 평화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염원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비현실적이라도 얼마나 정당한 염원인가.

나는 평화 애호나 중용주의를 담은 두꺼운 철학책이나 사상서보다, '에라스무스 평전'(아롬미디어), 이 한 권의 책이 독자의 마음을 더 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라스무스의 생애보다는, 격정적이면서도 독자의 심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독특한 문체의 힘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책은, 평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상서다!

김 종 광
〈소설가〉